

## “두려워하지 말라”

### ■ 이종윤 원로목사

건지 ·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차례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네 나라 왕의 역습에 공포와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네 군인들에게 줄 급료)이라” 이삭이 판 우물을 블레셋 그랄왕에게 빼앗겼을 때도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리라” 야곱에게는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복이 되셨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 앞에서 바로와 그 군대의 추적이 올 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에서 구원자가 되셨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진퇴양난의 국가적 위기와 오해와 편견에 묻혀 변명할 길 없는 개인의 위기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를 믿기만 하라”하신다.

그분은 불꽃같은 눈을 가지시고 모든 아름다운 것, 잃어버린 것, 잘못 된 것, 충성한 것을 다 보고 계시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주님으로 자기를 믿는 자를 용서하신다. 그 입은 날 선 검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죄를 쫓개는 날 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가지신 주님의 말씀이 역사와 개인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 그 오른손에 7교회의 사자인 7별이 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오늘도 일하신다. 사도 요한은 마침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에게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경외”가 있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하신다. 유라굴라 태풍을 만난 176명의 선원들은 함께 타고 가는 “사도 바울”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음성을 들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5천만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신 주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가 타고 가는 배의 선장이시고 그 분이 키를 잡고 계시니 “바람까지도 잠잠하라” 하시는 그분의 권능과 권세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자.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을 초청하여 길 가시는 도중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전갈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서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곧 일어나거늘” 하신 기적이 일어났다. 절망 중에도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도 일으키셨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실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난다고 했으나 옮겨 놓는 信心一致의 삶을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사람들은 보면 믿겠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믿으면 알게 되고 보게 된다 하신다. 믿되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만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믿고 볼 수 있기를 기도하자.

-한국장로신문 [제 1362호] 2013년 4월 13일 발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서울교회 3대 목사 청빙을 위한 특별제직회가 16일에, 중직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23일에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를 완전한 회복을 향하여 신속하게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더 열심히 모여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당에 방역대책이 안전하게 세워져 있으므로 안심하고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 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시면 좋겠습니다.

※ 주일 1,2,3부 예배, 오후 찬양예배, 수요 1부 예배를 본당에서, 수요 2부 예배는 웨민홀에서 드립니다.

본당 2,3,4층에 입장하신 후에는 반드시 ‘예배석’ 표시가 부착된 좌석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에는 유년부, 초등부가 대면예배로 드리며, 새벽기도회와 타 교육부서 예배는 계속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드립니다.

※ 방역, 교인확인 및 지하주차장 이용 안내

기준과 같이 1층 현관 앞 또는 지하주차장 주차 시 지하1층에서 발열체크 후 교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정상 교인증이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수기대장 작성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509\\_sermon.jpg](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509_sermon.jpg)

## 서울교회 당회 드림

|   |   |  |
|---|---|--|
| <b>우리의 비전 (vision)</b>                                  | <b>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b>  | <b>서울교회QR코드</b><br> |
|   | <b>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b> |  |
| <b>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b>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안용곤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양하림 이대원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권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진중·황경혜(말리우),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토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세리,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브도, 보디소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도,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팔리우), 이재용·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 “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라 ”

### ■ 말 2:14-15

흔히들 우리는 어린이들이 나라의 보배 혹은 꿈나무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의 어린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매우 암담합니다. 이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우선 앞에서 가르치는 지도자들이나 부모들이 가정생활에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육적인 실리를 영적 유익보다 크게 보기 때문이며 또한 교회 교육의 전문성이 세상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입니다.

### 1. 성도의 가정이 나라의 미래이다

어린이가 나라의 보배라고 한다면, 성도의 가정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세상은 가정의 중요성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저 출산국이 된 우리나라가 미래 경쟁력이 있을까요? 2100년도가 되면 미래의 지구상에 우리나라가 사라진다는데 교회는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런 때에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가정을 제대로 세워가야 합니다.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성경의 교훈대로 속히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민족의 미래요 교회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영이 충만하셔서 아담의 갈비뼈로 오직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 여자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왜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여러 여자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한 여자에게 즉, 하나님이 짝지어준 자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여인에게 거저되어 행치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많이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맺으시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창세기 2장 22절에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신 것에 대한 주님의 설명으로 한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를 얻고자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 2.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라

성도는 단순히 자녀 낳는 것으로 족할 수 없습니다. 그 자녀들이 거룩한 자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선지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합법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한다는 말씀은 단지 가문의 대를 잇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 '계라 열로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범죄 한 아담에게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 또는 뱀의 후손을 말하는 그 씨를 의미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손을 이야기할 때 단수로 아닌 복수로 말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사용된 이 '제라'라고 하는 명사는 한 번도 복수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묘미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의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후손이나 자손을 가리킬 때,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인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전체를 하나의 자손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가족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씨가 하나님의 참 택한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키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모세 오경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강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학교 성적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당장 아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도해야 합니다.

### 맺는 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를 가까이하는 아이가 복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도 행복의 척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거룩한 자손으로 번성케 하는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아이로 키우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잘 키워서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고 주의 나라를 흥행케 하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일에 복되게 쓰임 받으록 이바지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 시 간           | 인 도     | 기 도    |
|---------------|---------|--------|
| Time          | Prsider | Prayer |
| I 오전 9시       | 장석남 목사  | 박정선 장로 |
| II 오전 11시 20분 | 서명철 목사  | 최형열 장로 |
| III 오후 2시     | 전재홍 목사  | 전재홍 목사 |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출 20: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6(8)...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98(아버지주일)...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66(20)...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엡 6:1-4...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합 께  
 봉헌 Offering .....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합 께  
 설 교 Sermon ...“저승사자인가 보호자인가?”... 서장원 목사  
 \* 찬 송 Hymn .....275(333)...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목 도 ..... 다 합 께  
 성 시 ..... 시 85:1-2 ..... 인 도 자  
 찬 송 ..... 68(32) ..... 다 합 께  
 기 도 ..... 윤명구 집사  
 성 경 ..... 창 21:1-7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말씀하신 대로” ... 설 교 자  
 \* 찬 송 ..... 546(399) ..... 다 합 께  
 \* 축 도 ..... 인 도 자  
 \* 주기도송 ..... 다 합 께

##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 I부: 흥정란 권사 II부: 최영경 권사  
 성 경 ..... 룻 1:19-22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내 인생의 마라” ... 설 교 자

##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민·박수강·김복화2

설 교 ..... 전재홍 목사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 주 일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9시            |              |
|           | II 부 예 배        | 오전 11시 20분       |              |
|           | III 부 예 배       | 오후 2시            |              |
|           | 찬 양 예 배         | 오후 5시            |              |
|           | English Worship | 오전11시20분         | 웨스트minster 홀 |
| 수 요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11시           | 본당           |
|           | II 부 예 배        | 오후 7시            | 웨스트minster 홀 |
| 새 벽 기 도 회 |                 | 오전 5시 30분(월 - 토) | 웨스트minster 홀 |

## 교 회 소 식

### ☛ 모 임

1.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특별제직회 / 16일(주) 찬양예배 후 본당

### ☛ 알 림

1. 101호 예배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부서 모임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1.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에게 교회 명의로 신규계좌가 개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한은행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예전 사용하던 계좌는 2020년 12월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 이번주 심방 일정

1-7, 8-1~2, 9-1, 13-8~9다락방

### ☛ 결 혼

1. 최민성 군(김해순 씨의 장남) 최지혜 양(2교구 최홍열 집사, 오충례 권사의 장녀) /

5월15일(토) 오후 2시 더채플앳는현 5층 라메르 홀(02-562-1121) / 9호선 언주역 7번 출구

##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 주일1,2,3부 | 찬양예배 | 주일예배 합계 | 수요일예배 | 새벽기도   |
|----------|------|---------|-------|--------|
| 1,217명   | 315명 | 1,532명  | 331명  | 1,510명 |

## 어머님 전상서

그날 이후 어머니의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것도 서러운 일이지만 그보다는 떠나간 기차를 바라보고 서 있는 여행자처럼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을 이토록 원통하게 생각하며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토록 곱고도 환하시던 어머니의 이마 위에 잔주름이 점점 늘어가더니 마침내 호미로 골을 파듯 어둠의 그림자로 덮인 것을 알았을 때는 어머니의 체온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애달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어머니께 못 다한 효도를 주님의 사랑으로 외롭고 쓸쓸한 이웃들에게 마음껏 부어 주고 싶어 오늘도 섬기는 종의 자리에 이렇게 엎디어 있습니다.

어머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말없이 말을 하고 계신 어머니의 무덤 위에 사랑을 듬뿍 담은 이 꽃 한다발을 바치고 싶습니다.

-이종운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         |  |
|---------|--|
| 청 결 유 지 |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심시다.   |
| 에너지 절 약 |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br>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니다. |
| 주 일 성 수 |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br>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